

소·돼지가 담보...결국 사료회사에 다 뺏겨
정부 사료값 폭등 무대책, 무안 농민 결국 숨져

死地 내몰린 축산농

폭등하는 사료 값을 감당하지 못한 전남지역 축산농민들이 사료 회사에 빚을 갚지 못해 담보로 잡힌 돼지나 소를 넘기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정부가 사료값 안정과 농가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축산농가의 현실과 동떨어져 농민들을 더욱 벼랑으로 내몰고 있다.

무안군 운남면에서 양돈을 하고 있는 박모(60)씨. 박씨는 지난해 말 늘어나는 사료 값을 감당하지 못해 사료 회사에 자신의 돼지 400여 마리를 담보로 제공했다. 그러나 담보로 맡긴 돼지만으로는 치솟는 사료값을 감당하지 못했다. 박씨는 결국 사료 빛이 7천만원에 달하자 돼지를 모두 사료회사에 넘기고 돼지 사육을 포기했다.

박씨는 "돼지까지 담보로 잡아가겨 연명해 왔는데 이젠 이마저도 할 수 없게 됐다"며 한숨쉬었다.

한우 70마리를 키우고 있는 강모(63·장성군 장성읍)씨도 지난 4월 초 사료 값 8천여만원을 갚지 못해 사료회사에 소를 모두 넘겼다. 정부가 축산농가에 대한 지원책 마련을 약속했지만 이미 5천

만원의 빚이 있고 신용불량상태라 그림의 떡이다.

강씨는 "소값은 떨어지고 사료값은 올라 감당할 길이 없다"며 "사료회사로 소를 넘긴 기쁨은 자식을 사지(死地)로 내몬 심정이었다"고 말했다.

정부에서도 사료 값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농가를 위해 지난 4월 사료 구매자금 1조원을 방출했지만 농민들에게는 '빚 좋은 개살구'일 뿐이다. 연 3% 단기상환자금으로 1년 안에 갚아야 하는데 이 자금을 빌리기 위해서는 신용도가 좋아야 하지만 이미 수천만~수억원씩의 빚을 지고 있는 농민들은 전혀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이다. 또 분할 상환이 아닌 1년 안에 한 번에 돈을 갚아야 하는 상황이다 보니 제때 갚지 못해 빚이 늘어나고 있어 오히려 부채증가요인으로 되고 있다.

이 때문에 지난 3일 오전 무안군 삼향면에서 돼지 200여마리를 키우던 김모(56)씨가 폭등하는 사료값을 내지 못해 사료 공급이 중단되자 스스로 목을 매 자살했다. 앞서 지난달에는 함평군 나산면에서 소를 키우던 이모(42)씨가 대출금

을 갚지 못해 자신의 부인과 자녀를 살해하려 한 뒤 목숨을 끊었다.

박문재(60) 무안군 양돈협회 지부장은 "정부에서는 수차례 농가 안정을 위한 지원대책을 마련한다고 하지만 오히려 악재만 가져다 준 꼴이다"며 "사료 값 안정을 위해서는 원료로 쓰이는 보리를 농민들이 키울 수 있게 전량 수매하는 등 하게 되면 다소 가격 안정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광림상기자 kps@kwangju.co.kr
/무안=대성수기자 dss@

박준영 지사 빈소 방문 애도

박준영 전남도지사는 4일 치솟는 사료 값 때문에 목숨을 끊은 양돈농가 김모(56·무안군 삼향면)씨 빈소를 찾아 애도의 뜻을 표했다.

박 지사는 이날 오후 목포 삼목장례식장에 마련된 김씨의 빈소를 방문, 유족들에게 "소중한 생명을 잃어 안타깝다"며 "용기와 희망을 버리지 말고 어려움을 함께 극복해 나가자"고 위로했다.

/김주정기자 jnews@



치솟는 사료값을 비판, 자살을 기도해 4일 숨진 무안군 삼향면 김모씨의 축사. 며칠째 사료를 제대로 못먹어서인지 돼지들이 비쩍 마라 있다. /위정림기자 jrwi@

'광주 촛불' 이것이 궁금하다

1회 비용 150만원, 성금으로 총당

어떻게 열리고 있을까. 광주 촛불집회의 주도 세력은 누구이고, 대회비용은 어떻게 조달하는지, 광주에서의 평화시위는 언제까지 계속될지 궁금증을 낳고 있다.

◇광주 집회 누가 주도하나=광주에서 첫 번째 촛불집회가 열린 것은 지난달 10일. 서울 촛불집회에 자극을 받은 '정책반대 시위연대' 광주·전남 지역 네티즌들이 광주동부경찰에 집회신고서를 제출하면서 부터다. 이후 광주 집회는 광주·전남지역 200여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광주전남비상시국회의'가 주도하고 있다.

첫 촛불집회에 참가한 사람만 3천명. 노무현 대통령 탄핵반대 촛불집회 당시 금남로에 모였던 시위대 수보다도 많았다.

◇촛불집회 경비는 누가 대나='비상시국회의' 회계책임자에 따르면 대규모 촛불집회 1회 개최 비용은 대략 150만원 정도며, 비용 대부분은 시민들의 자발적 성금모금으로 충당하고 있다.

1천명 이상이 참여하는 대규모 집회가 열린 것은 지금까지 5회 정도. 시민들의 열기가 더해질수록 비용도 함께 늘었다. 고심하던 주최 측은 지난달 28일 부터 모금운동을 시작했다. 4일 현재 모인 돈은 1천

300여만원. 5천명 넘는 시민들이 참여한 지난달 31일에는 5시간만에 300만원이 걸렸다.

◇성금은 어디다 쓰나=성금은 크게 양초값과 무대차량, 발전기 대여 비용으로 들어간다. 엠프는 기아차노조에서 무상대여 받았다. 무대로 사용되는 15t 화물차 임대비용이 하루 20만원, 발전기 임대 비용은 30만원. 지금까지 3만여개 정도 구입한 것으로 추정되는 양초와 종이컵 값으로 300여만원이 들었다. 현재 남아있는 돈은 110만원, 대규모 집회를 한 번 더 치를 정도다.

◇광주 평화집회 계속될까=광주 집회는 현재까지 평화롭게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6·10항쟁 21주년인 오는 10일 대규모 집회가 예고돼 있어, 이날이 광주 평화집회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광주지역 주요 대학과 민주노총, 전교조 등이 이날 집회에 대거 참여할 예정이어서 10일이 평화집회 지속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안현주기자 ahj@kwangju.co.kr

민노총 촛불집회 참여 선언 광주 대학가 동맹휴업 확산

그동안 광장자세를 보여 온 광주지역 노동계와 대학생들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를 위한 촛불집회 참여를 선언했다.

민노총 광주지역본부는 4일 단위노조 대표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비상운영위원회를 열고, 행동지침을 각 지부에 하달했다.

광주지역본부는 행동지침에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저지와 이명박 정부를 규탄하는 촛불집회가 전 민중의 항쟁으로 번져가고 있다"며 "공공부

문 매각, 기름값·생필품값 폭등으로 노동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생존권 수호를 위해 3만 조합원이 총력투쟁을 결의한다"고 밝혔다.

광주지역본부는 오는 5일 촛불집회 집결 선전전을 시작으로 ▲7일 전국 동시다발 촛불집회 참여 ▲10일 오후 광주지역본부 전 조합원 참가 결의대회 개최 ▲10일 저녁 촛불집회 참여 등의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했다.

이와 함께 대규모 촛불집회가 예상되는 10일에는 총파업과 산업거부 투

전교조도 미 쇠고기 반대 운동 동참

전교조 광주지부가 미국산 쇠고기를 학교 급식에 사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교장들로부터 제출받고, 미제출 학교를 공개하는 등 미국산 쇠고기 수입 금지 운동에 적극 동참키로 했다.

전교조 광주지부는 4일 성명을 통해 "시교육청은 광주 시내 모든 학교가 쇠고기는 한우만을 사용하고 있으며, 철저한 원산지 및 품질 확인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일부 학교가

쇠고기 메뉴를 급식에서 제외시키는 등 일선 학교에 초비상이 걸린 상태"라고 밝혔다.

전교조 광주지부는 이에 따라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100만인 서명 운동 ▲학교운영위와 학교급식선정위 차원의 미국산 쇠고기 사용 금지 결의 및 학교장 선언 ▲교직원, 학생, 학부모가 참여하는 사이버 청원 활동 등을 전개해 나가기로 했다.

/정성필기자 camus@kwangju.co.kr

쟁을 벌이고, 민주노총 중앙에서 파업지침이 하달되면 전 조합원이 일정에 맞춰 즉각 파업에 돌입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광주지역 대학교의 동맹휴업도 갈수록 확산되고 있다. 전남대 총학생회는 3일 전체 학생대표자 회의를 열고, 참여학생 153명 중 121명의 찬성으로 오는 10일 동맹휴업을 결의했다. 조선대는 5일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동맹휴업 찬반투표를 실시한 뒤 가결될 경우 10일 동맹휴업을 할 예정이다.

한편 서울대 총학생회는 학생들의 찬반투표를 통해 5일 하루동안 동맹휴업에 들어간다고 4일 밝혔다.

/안현주기자 ahj@kwangju.co.kr
/이종형기자 gilee@kwangju.co.kr

돈 받은 경찰관 해임

광주지방경찰청은 3일 "사건 당사자로부터 돈을 받아 물의를 일으킨 광주 북부경찰서 소속 문모 경사를 최근 해임했다"고 밝혔다.

문 경사는 2006년 9월께 김모(46)씨로부터 사건 해결의 대가 등으로 3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받은 혐의로 검찰의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검찰이 최근 문 경사를 불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자 해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권익기자 cki@



다 좋은 건데... KCC

(주) 금복시스템

개인주택, 아파트 발코니

신규사시 제작 및 상담관행

▶ 서울본사 : 02) 3445-0943
▶ 광주광역시 : 061) 337-0571

입주자 명단 요구 거절하자 절도·행패

○고교 동창생 이 사는 빌라로 착각한 50대 남성이 관리사무소에서 물건을 훔치고 남의 집에 올라가 행패를 부리다 경찰서행.

○광주북부경찰에 따르면 권모(57)씨는 지난 2일 밤 8시께 광주시 북구 용봉동 A빌라 관리사무실에서 경비원 고모(72)씨에게 입주자 명단을 달라고 요구했으나 거절하자 선글라스를 훔쳐 달아났다.

○권씨는 다음날에도 이 빌라 5층 한모(여·29)씨 집에 찾아가 "경비원입니다. 문 좀 열어주세요"라고 말하며 현관문 유리창을 깨트리고 신고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했는데, 경찰에서 "고등학교 동창이 이곳에 살고 있는 것으로 기억돼 찾았었는데 입주자 명단을 주지 않고 문전박대를 당해 화가 났었다"고 진술.

○경찰은 권씨를 절도 등 위반혐의로 불집야 조사 중.

/이종형기자 gilee@kwangju.co.kr

해피투게더 4050싱글열차

만남의 기회! 사랑의 열차!

주최: 행복열차추진위원회

출발일: 2008년 6월 7일(토)
출발지: 광주광역시 동구 동부동
도착지: 전남 곡성군 곡성읍 곡성역

주최: 행복열차추진위원회
주최처: 행복열차추진위원회
주최처: 행복열차추진위원회

문의: 061-527-3388

가발

최신제품 70만원

초슬림!!

가발 전문점

문의: 061-527-3388